

사회

목포서 여대생 목졸려 피살

옷 벗겨진 채 배수로서 발견 성폭력 뒤 시신 유기 가능성

목포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6일 새벽 4시30분께 목포시 상동 한 병원 뒤편 공원의 배수로에서 전남 모 대학 4년 조모(여·22)씨가 숨져있는 것을 수색작업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숨진 조씨는 속옷과 바지가 벗겨져

있는 상태였으며, 목에는 누군가에 의해 졸린 흔적이 남아있었다. 또 조씨가 발견된 장소 인근 공터에서는 조씨의 상의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새벽 3시30분께 조씨의 가족들로부터 '딸이 집에 올 시간이 넘었는데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조씨에 대한 수색에 나섰다.

조씨는 전날 밤 11시20분께 병원에서 500m 가량 떨어진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언니(24)에게 '공원 길로 집에 가고 있다'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조씨가 상의가 발견된 공터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시신이 유기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인적이 드문 수로에서 발견됐다는 점 등에서 인근의 지리에 밝은 성폭행 전과자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조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을 의뢰하는 한편,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조씨가 발견된 장소 인근에 CC(폐쇄회로)-TV가 설치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조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완강히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해 유기한 뒤 소지품을 훔쳐 달아난 것 같다"면서 "단순히 금품을 노렸다가 반항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채권자와 동행 가택수색 논란

채무자 "영장없이 수색 가족에 상처 ... 경찰관 처벌" 경찰관 "잠적 신고 받고 출동 ... 규정대로 집행했다"

현직 경찰관들이 영장없이 채권자와 함께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 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동림동 A아파트 1층 조모(36)씨의 집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조씨의 아내가 문을 열자 현관 문 앞에 조씨에게 돈을 빌려준 C씨 등 5명이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

속 B경사 등 경찰관 2명과 함께 서 있었다.
조씨의 아내는 "집에 남편이 있느냐?"라는 B경사의 말에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B경사는 "집에 남편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한 뒤 C씨 등 채권자 3명과 함께 조씨의 집에 들어갔다.
이어 B경사는 조씨 집의 현관을 거쳐 안방·작은방·발코니를 확인

한 뒤 장롱과 침대 밑 등을 뒤졌다. 다른 경찰관 1명과 C씨 등 채권자 3명은 현관문 신발장 앞에서 이를 지켜봤다.
B경사는 5분간 집안 구석구석을 살핀 뒤 "(조씨가) 없네"라며 밖으로 나왔다. 당시 집에는 조씨의 아내와 딸(7·아들(5) 등 3명이 있었다.
조씨의 아내는 이날 시아버지

(57)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시아버지는 지난 15일 "경찰관들이 가택수색영장 등 합법적인 절차도 밟지 않은 채 며느리와 손자가 있는 집에 들어닥쳤다"며 광주지방 검찰청에 진정서를 냈다.
조씨는 진정서에서 "경찰이 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집안을 수색해 어린 손자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며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B경사는 "대출금 명목으로 5350만원을 조씨에게 건넸는데, 조씨가 잠적했다는 C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다"며 "확인차원에서 조씨의 아내 동의 하에 집에 들어갔으며, 규정대로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불대 비리폭로 교수 면직은 무효"

광주지법 판결

영남 대불대학교가 학교 비리를 폭로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영화)는 17일 전모(56)씨 등 대불대 전 교수 3명이 학교법인 영신학원을 상대로 낸 소속변경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 측이 전씨 등의 소속학과를 변경하고 직권면직한 처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는 한편, 위자료 2000만원과 복직 때까지 월급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들에

대한 소속변경은 경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이기보다 재단 비리를 고발한 교수협의회원들을 몰아내려는 의도로 보여져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전씨 등은 지난 2005년 8월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결과 학교 이사진의 횡령과 배임 등이 드러나자 동료 교수 50명과 함께 교수협의회를 만들어 이듬해 1월 대학 총장과 부총장 등을 고발했다.
이에 대학 측은 '숨인 없이 교수협의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린 뒤 컴퓨터학부 소속이던 교수들을 교양학부로 배정한 뒤 교수 전씨 등을 직권면직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어린이용품 훔친 6남매 엄마 돕고싶다"

中企 사장이 100만원 성금

생활고에 시달리던 6남매의 엄마가 아이들에게 줄 양말 등 어린이용품을 훔치게 된 사연(광주일보 10월16일자 1면)을 접한 본보 독자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자신을 하남산단에서 중소기업 운영을 대표라고 밝힌 이 독자는 "기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부디 6남매의 엄마가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 살아갔으면 좋겠다"며 "많은 돈은 아니지만 100만원 정

도 성금을 전달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매달 100만원을 버는 남편과 함께 6남매를 키우고 있는 A(38·광주시 북구)씨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광주의 한 매장에서 어린이용품을 몰래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보는 18일 이 독자와 성금 전달 방법에 대해 논의한 뒤 6남매의 엄마에게 성금을 전할 계획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하룻밤 새 아파트서 차량 37대 긁혀

하룻밤새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37대가 긁힌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6일 오전 8시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34)씨가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해둔 자신의 포르테 승용차 보닛 등이 긁혀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나와보니 전날 밤 주차해 둔

차량의 보닛 등이 심하게 긁여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이 아파트에서 김씨의 경우처럼 '차량이 날카로운 물건에 긁혀있다'며 신고된 건수는 총 37건에 이른다.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의 화면분석을 토대로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한 20~3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쫓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무전취식 50대 연행하자

경찰관 옆구리 물어뜯어

광주남부경찰은 17일 자신을 연행하던 경찰관의 옆구리를 물어 뜯은 안모(51)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5일 밤 10시2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한 식당 앞에서 순찰차를 타고 백운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김모(39)경사의 오른쪽 옆구리를 물어 뜯은 혐의다. 김 경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안씨는 이날 식당에서 소주 2병과 안모(51)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5일 밤 10시2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가을을 낚는 강태공들

17일 오후 호수 만연저수지에서 열린 제1회 광주시장배 민물낚시대회에 참가한 '강태공'들이 가을 월척을 기대하며 낚시대를 드리우고 있다. 이날 열린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350여명이 몰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주말·휴일 교통사고 잇따라

광주·전남 16명 중경상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에서 3건의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7일 오전 6시53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지하철 상무역 인근 도로에서 양모(30)씨가 운전하던 투스카니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아 전복됐다.
이 사고로 양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광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경찰은 양씨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145)



전남경찰청사 건립 비리 경찰 간부 등 2명 구속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16일 전남지방경찰청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남경찰청 소속 A경감과 일반직 직원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
A경감과 B씨는 올해 초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신청사 시공을 맡은 Y업체로부터 각각 1000만원,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Y건설사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Y업체가 겨울철 공사중지 기간에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된 뒤 공사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이자 A경감 등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중학생들 줄줄이 청바지 훔치다...

○주말 시내에서 소풍하던 중학생들이 "바지를 훔쳐왔다"는 친구의 무용담(?)을 듣고 함께 물러가 청바지를 훔쳤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줄줄이 경찰서행.
○17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중학교 김모(14·2년)군 등 5명은 전남 오후 5시께 광주시 동구 황금동 강모(44)씨의 의류점에 들어가 강씨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틈타 청바지 1장(2만원 상당)씩 가지고 나오는 등 모두 11만9000원 상당의 청바지를 훔쳤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강씨의 가게를 구경하고 나온 김군이 친구들에게 "청바지를 몰래 가져왔다"고 자랑하자 친구들 4명이 차례로 들어가 옷을 가방에 넣어 훔쳤는데, 마지막으로 바지를 훔치러 들어가 한모(14)군의 범행이 주인에게 발각돼 덜미.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대학편입 마무리 실전트레이닝!

김영만의 탄탄한 합격시나리오 11월 1일 대개강

수도권 편입대비 편입영어 Final Course	이공계,자연계 편입대비 편입수학 Final Course	전남대 편입대비 TEPS 100점 올리기 Project
-------------------------------	-----------------------------------	-----------------------------------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